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전국 7만 2,460가구 중 37.9% ‘수돗물 먹는다(끓여서 포함)’ 응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조사하며, 2021년에 첫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전국의 7만 2,460가구(표본)를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하여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물의 종류)을 중복해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라고 응답하여 2021년 36%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 비율은 53.6%(2021년 대비 4.2%p 상승)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비율은 34.3%(2021년 대비 1.4%p 상승)로 확인됐다.

※ 수돗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중복응답의 합은 2021년 119.6%에서 2024년 130.5%로 증가

한편, △집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는 47.5%(2021년 대비 5.9%p 상승),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66%(2021년 대비 1%p 하락)가 수돗물(정수기 설치·이용 미포함)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약간 만족’ 51.4%, ‘매우 만족’ 6.8%), ‘보통’ 36.6%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소에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 보면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택 내 노후된 수도관 교체 및 세척지원’(38.0%), ‘정수시설 현대화·고도화’(36.1%), ‘원수(상수원) 수질관리’(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된다’와 ‘지자체의 노후관 교체·세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노후지방상수도 정비(관망 정비, 정수장 개량)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이 사업에는 2017년부터 4.9조원(국비 2.7조원)이 투입됐다.

*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17~’29년, 전국 128개 시군, 총 사업비 5.9조원(국비 3.2조원)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12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개요.
 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주요 결과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유병훈 (044-201-7119)
	한국상하수도협회 소통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성민 (02-3156-7740)
		담당자	담당자	유세연 (02-3156-774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4. 4. 22.(월) ~ 6. 30.(일)
- (조사대상) 전국 72,460가구
- (조사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관)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행기관) (주)메트릭스

□ 지역별 조사 가구 수 현황

연번	지자체	조사 가구 수	연번	지자체	조사 가구 수
1	서울특별시	4,035	10	강원특별자치도	5,970
2	부산광역시	1,695	11	충청북도	4,015
3	대구광역시	1,420	12	충청남도	5,330
4	인천광역시	1,530	13	전북특별자치도	5,020
5	광주광역시	1,105	14	전라남도	7,145
6	대전광역시	1,125	15	경상북도	8,035
7	울산광역시	955	16	경상남도	7,030
8	세종특별자치시	520	17	제주특별자치도	730
9	경기도	16,800			

※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산정 및 시군별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

□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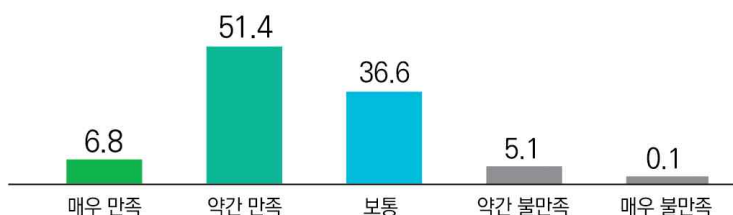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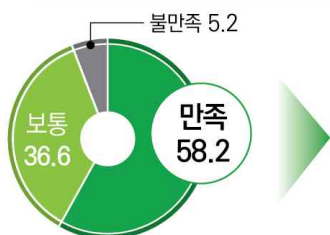
구분	조사항목
I. 물에 대한 인식	평소 먹는 물에 대한 관심 정도, 수돗물/정수기/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평소 생각,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II. 가구 내 먹는 물 현황	이용 방법(물을 먹을 때, 차/커피를 마실 때, 밥/음식을 조리할 때) 및 그 이유,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III. 수돗물 공급 및 관리	수돗물 공급단계에 대한 인지 여부, 수돗물 원수 수질/정수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도 및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신뢰도 및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
IV. 수도요금 현황	지역마다 다른 수도요금(생산원가)의 인지 여부, 수도요금 인상시 비용 부담 의향 및 인상에 대한 수용 수준 등
V. 정책 만족도 및 방향	지자체 수도사업자와 사업 관련 접촉한 경험 및 이에 대한 만족도, 지자체의 수돗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VI. 수돗물 사용 불편 및 인식	수돗물 이용 관련 불편사항 및 대처 방식,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시 행동, 수돗물 속 염소에 대한 생각 등
VII. 수돗물 정보 습득 및 홍보	제공받길 원하는 수돗물 정보, 수돗물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및 효과적인 홍보 방법



1. 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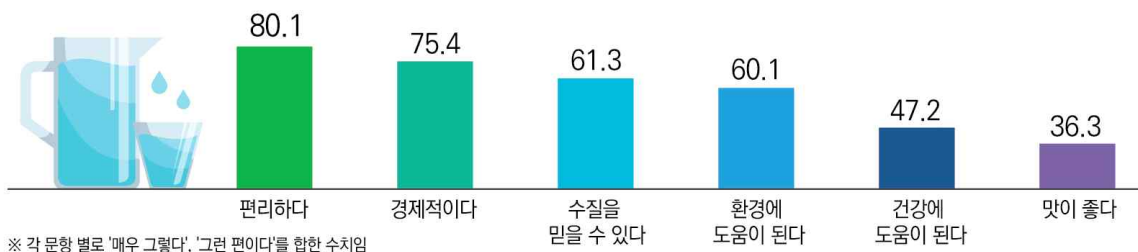
1-1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1-2 먹는 물에 대한 관심-수돗물에 대한 생각

(단위: %)



※ 각 문항 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를 합한 수치임

2. 가구 내 먹는 물 현황

2-1 상황별 물을 이용하는 형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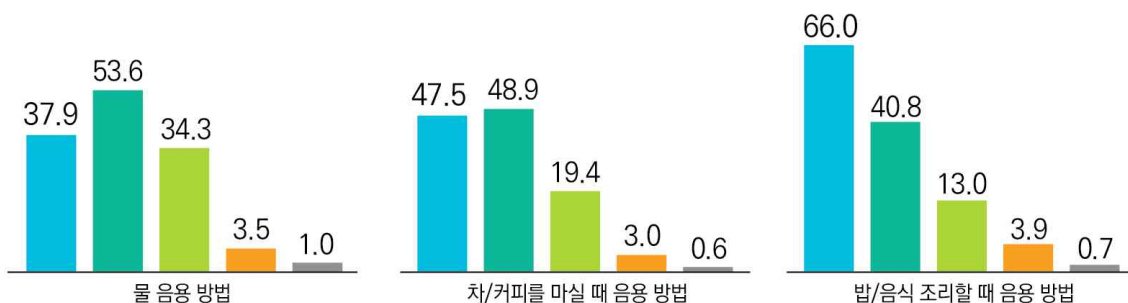
(단위: %)



수돗물 음용률 37.9

■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 정수기를 설치해서

■ 먹는 샘물(생수)을 구매해서
■ 간이 필터를 사용해서
■ 우물물/지하수/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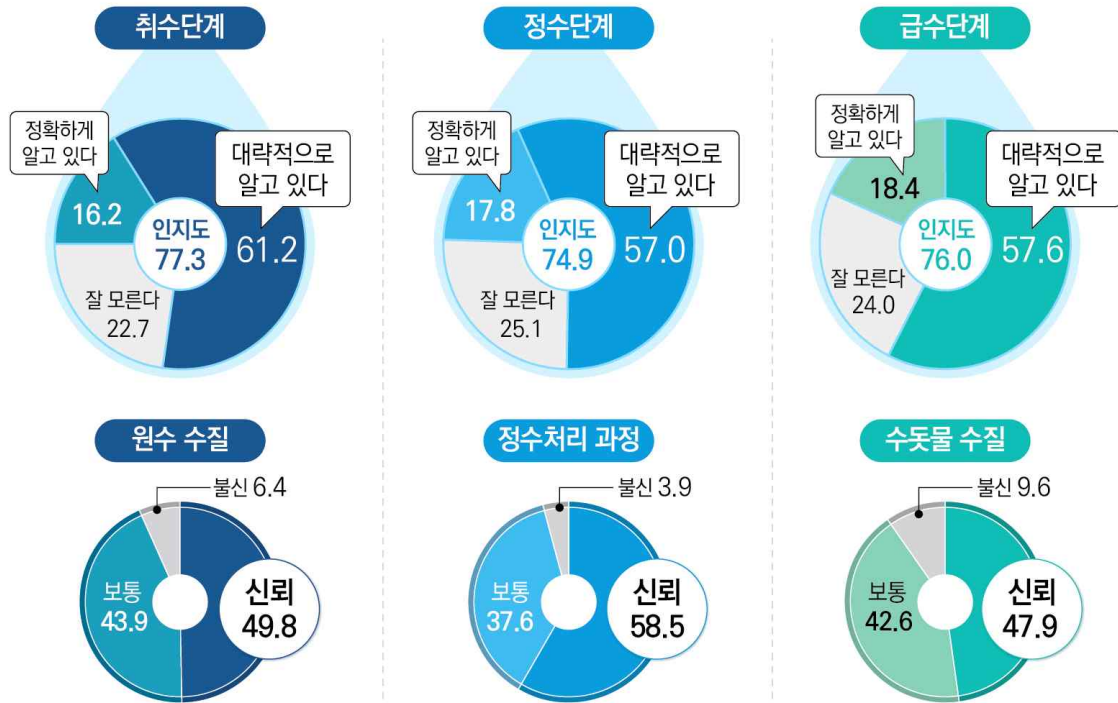


※ 각 상황별로 2개 이상 중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합계는 100% 넘을 수 있음

3. 수돗물 공급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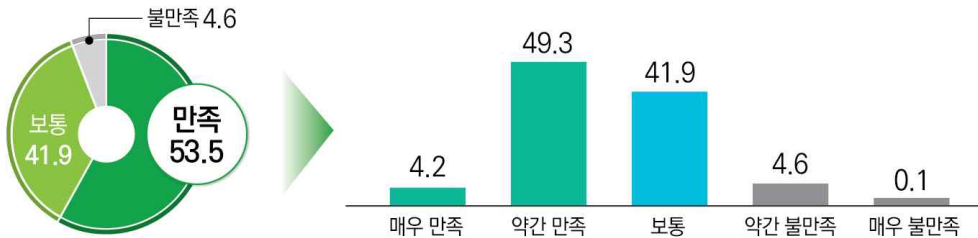
11 | 수돗물 공급단계별 인지도와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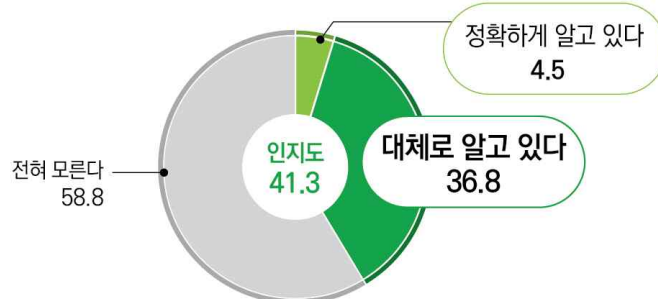
12 |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13 | 수도관 관리 주체가 거주민인 것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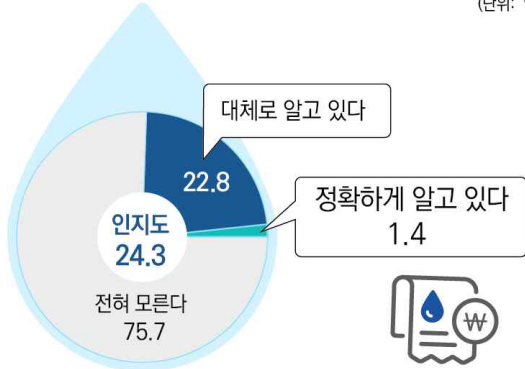
(단위: %)



4. 수도요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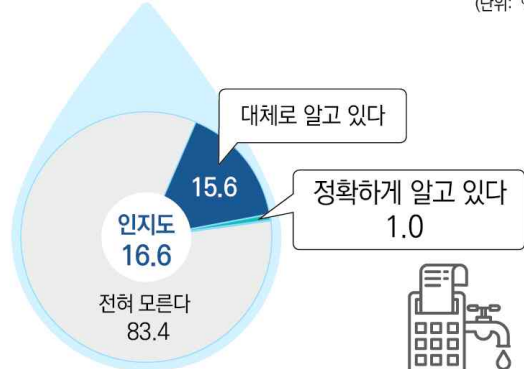
11 지역마다 생산원가와 요금이 다르다는 사실 인지도

(단위: %)



12 수도요금은 수도물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의 72.9%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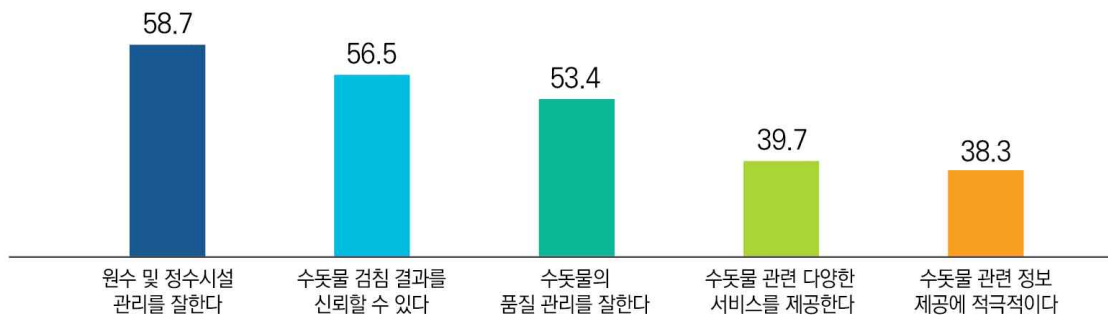
(단위: %)



5. 정책 만족도 및 방향

11 지자체 수도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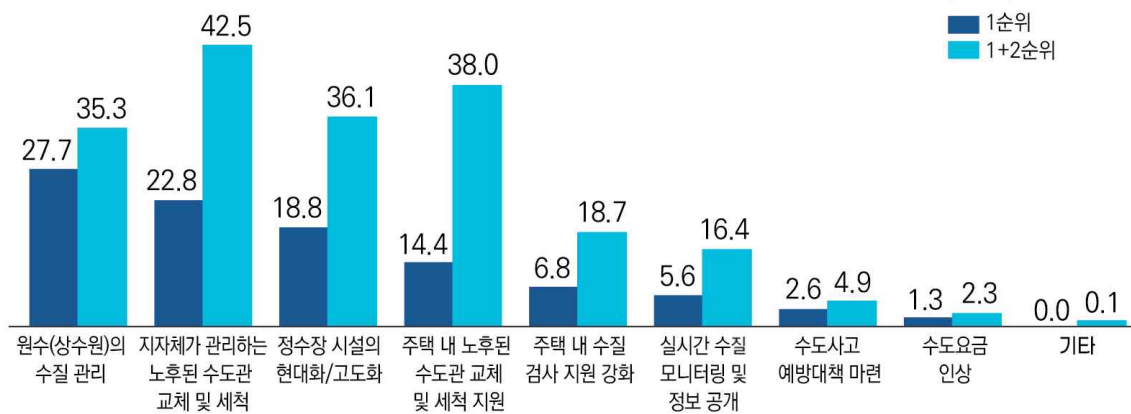
(단위: %)



※ 각 문항 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를 합한 수치임

12 수도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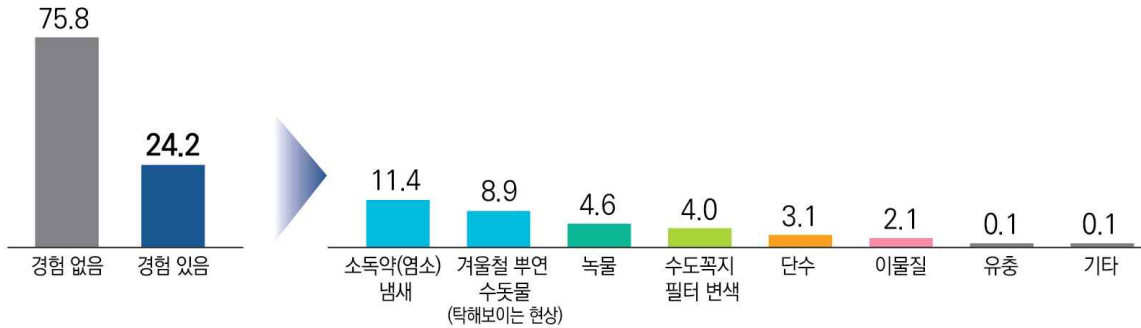


※ 1+2순위 중복응답: 1순위, 2순위 응답을 중복으로 산출하여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6. 수돗물 사용 불편 및 인식

111 최근 1년 이내 수돗물 이용 불편경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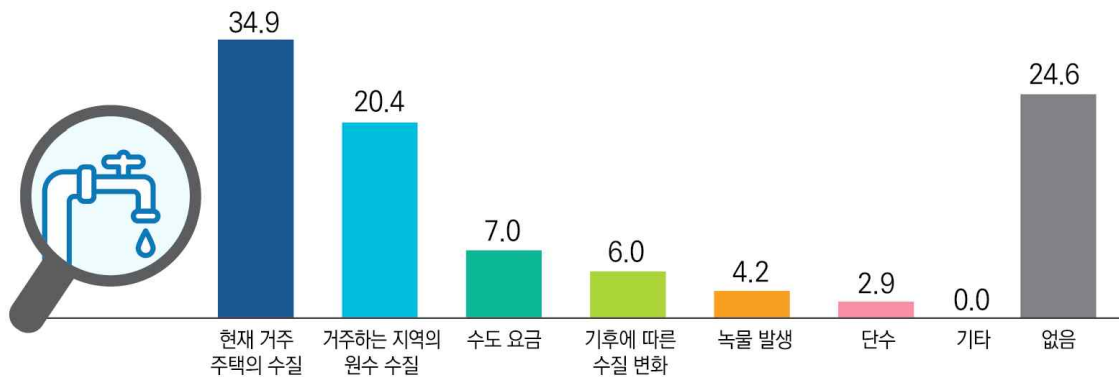
(단위: %)



7. 수돗물 정보 습득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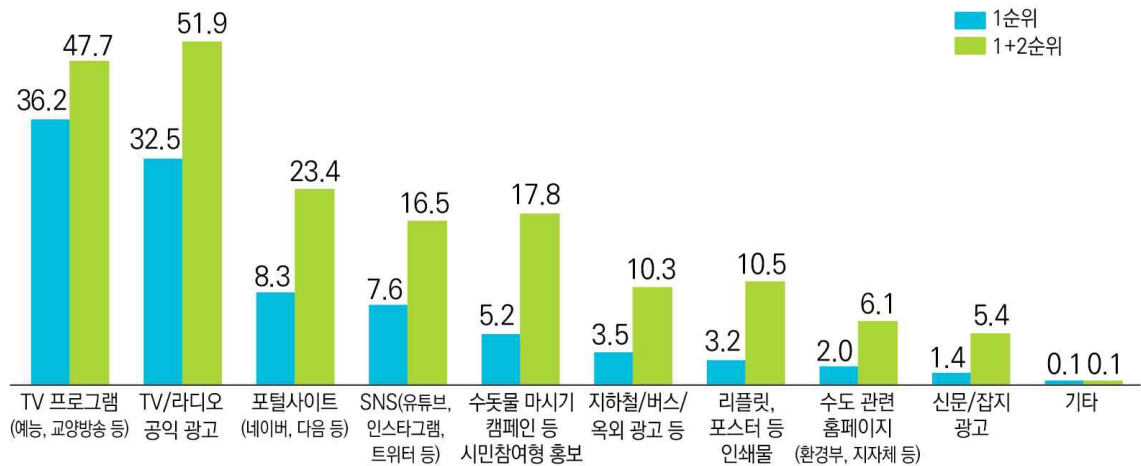
111 제공받기를 원하는 수돗물 정보

(단위: %)



121 수돗물 관련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

(단위: %)



※1+2순위 중복응답: 1순위, 2순위 응답을 중복으로 산출하여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① 일반적으로 전국을 조사하는 통계는 2만 표본 수준인데,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7만 표본 이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나라는 161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자이므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도사업자별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적인 조사는 통상적으로 전국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는 반면, 본 조사는 전국을 161개 지자체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
- 각 수도사업자별 통계 신뢰성을 위해 최소 300가구 이상의 표본을 할당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체 7만2천 가구로 표본이 설계됨

② 해외에서도 국가에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하는지?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자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함

③ 해외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수돗물 음용률은 국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으며, 나라마다 조사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먹는 비율(끓여서 포함)'을 공표하고 있음
 - 미국*은 '일상생활에서 수돗물을 음용한 경험과 빈도'를 조사해 수돗물 먹는 비율로 산정하고 있고,
 - * 미국수도협회, AWWA(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프랑스 파리시(Eau de Paris)는 집에서 먹는 물의 종류(①수돗물, ②수돗물과 먹는 샘물, ③먹는 샘물로 구분)를 조사하는데 ①수돗물만 음용, ②수돗물과 먹는 샘물을 음용하는 경우를 합하여 수돗물 먹는 비율로 산출하며, 이때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수돗물 음용에 포함하고 있음('23, 수돗물 먹는 비율 79%)
 - ※ 참고로, 프랑스 파리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수기(간이필터 포함)를 설치하여 먹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돗물 먹는 비율은 약 80.9% 정도임
 - ※ 단, 제2차 실태조사의 설문문항이 파리시 설문문항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3차 실태조사 시에 설문추가 검토추진

④ 국외의 경우 온라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함. 가구 방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조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가구 내 수돗물 먹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를 응답자로 한정하여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가구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연령층의 응답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임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 개선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통계청,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임